

광양시, 가뭄 극복 위한 '수돗물 20% 절감' 시민 동참 호소

광양시는 가뭄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돗물 20% 절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용도별 절감량을 세분화해 수돗물 사용량(5만5천톤/일)의 20%(1만1천톤/일)를 절감 목표량으로 설정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시는 전 시민 물 절약 동참을 위해 캠페인(월 2회), 플래카드(60개소), 홍보물(1만장), 전광판(2개소),

방송(마을, 공동주택), SNS 홍보(카드뉴스 등)를 중점 활용하고, 특히 홍보반을 편성해 공동주택, 학교 시설, 병원, 식당가 등을 직접 방문해 가뭄 심각성을 홍보해 목표량의 11%(6천톤/일)를 절감할 예정이다.

공업용수와 사업용수의 철저한 관리로 목표량의 5%(2천770톤/일)를 절감하기 위해 공업용수 4개 업체는 이미 제출한 계획 수립서에 의한 실천 여부를 주간 단위로 체크하고, 공공시설물(공원, 공중화장실,

공공수영장)에서 최대한 수돗물을 줄이고 대체용수(지하수)를 사용하도록 해서 수돗물 사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누수탐사 및 감압 밸브 설치, 면 지역 관정 재사용 여부를 현장 검토해 목표량의 4%(2천230톤/일)를 절감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한편, 지난 23일 실시한 '물 절약 실천으로 가뭄 함께 극복하기' 캠페인은 생활 속 물 절약 동참을 통해 시민에게 가뭄의 심각성을 고취하

기 위해 중마동 컨부두사거리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한 안전도시국, 물관리센터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수막 등을 활용해 생활 속 실천 가능한 물 절약 방안을 홍보했다.

이광신 상수도과장은 "제한 급수나 급수 중단 조치를 막기 위해 내년 장마철까지 1인당 20% 물 절약을 목표로 전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이유빈 기자

구례군, 내년도 본예산안 3천454억 편성

구례군은 최근 2023년도 본예산안 3천454억 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54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 288억 원(8.4%), 환경 분야 328억 원(9.5%), 사회복지 분야 690억 원(19.9%), 농업 분야 634억 원(18.3%), 지역개발 분야 244억 원(7.0%) 등으로 편성됐다.

군 담당자는 내년 예산의 주요 방향을 농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 경제 생태계 구축, 남부권 주요 관광지 도약, 살기 좋은 지역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역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연드림 치유 힐링 클러스터 유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소득 작물 보급, 친환경·스마트팜 구축 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치유농업 캠퍼스 조성 사업, 지리산정원을 활용한 생명 치유 가족 단지 등을 조성해 농업과 치유, 자연과 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농업·농촌의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남부권 주요 관광지 도약을 위해 서민선 7기 수립한 4+α 관광권역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거점개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전망이다. 오산 케이볼카 조성 등 오산권역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섬진강 힐링생태공원, 스마트 공유스테이션, 단달기습곰 보금자리, 화엄4색 블루투어 프로젝트 추진 등 섬진강과 지리산온천, 화엄사 권역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 거점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살기 좋은 지역기반 조성을 위해 상·하수도, 도시가스 보급, 웰니스 복합센터 건립, 읍 권역 도시재생 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기반 인프라 구축 및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LH 임대주택, 청년하우스, 소규모 공영택지, 농촌유학센터 등을 조성해 귀농귀촌인 및 관계인구의 유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홍경석 기자

곡성군, 오곡 압록지구 측량 결과 주민설명회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29일과 30일 양일간 압록 마을회관에서 오곡 압록지구 측량 결과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곡성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마을회관에 직접 찾아가 일대일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땅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추후 절차에 대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 참석 대상자는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약 200여 명이다. 곡성군은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시일 내 측량 결과를 담은 지적 확정 예정 조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우편에 동봉된 의견서를 통해 제출 기한 내에 경계 설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 및 조정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후 다시 결정 통지를 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최종 완료되고 나면 면적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게 된다.

곡성군은 이번 오곡 압록지구 설명회는 곡성군의 금년 마지막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설명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선섭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내달 2일부터 3일간 순천 문화재야행을 문화의 거리 및 매산동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재 야행은 쌀쌀하게 변한 날씨에 맞춰 겨울에 어울릴 만한 다양한 콘텐츠들로 채워진다. /순천시 제공

“순천 문화재 야행, 겨울의 초입서 만나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내달 2일부터 3일간 순천 문화재야행을 문화의 거리 및 매산동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재 야행은 쌀쌀하게 변한 날씨에 맞춰 겨울에 어울릴 만한 다양한 콘텐츠들로 채워진다.

군밤굽기와 같은 체험이 대표적이다. 매산동에 뜨거운 숯불과 그릴을 설치하고 맛있는 밤으로 유명한

송광면에서 공수된 알밤을 직접 구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군밤굽기 체험은 투어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스텝부터어나 해설투어 참여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 가을에 계획됐던 프로그램들 또한 여전하다. 한국사 최대성감사와 개그우먼 김세아 등이 참여하는 토크쇼가 문화의거리 한옥골

방에서 열린다. 재미와 입담으로 유명한 이들의 입을 통해 순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이 어떻게 표현될지 기대해볼 만하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투어도 알차게 준비하고 있다. 해설투어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주어질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여수, 2023년 체육진흥시설 공모에 선정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체육진흥시설 공모에 6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체육시설 지원 3개 사업과 2023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준비 3개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선정돼 총 12억 3천 5백만 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다.

공공체육시설 지원으로는 ▲진남경기장 잔디교체 및 시설 정비 ▲망마국민체육센터 기계실 개보수 ▲망마케이트볼 보조구장 건립 등 3개 사업이 선정됐다.

2023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준비 사업으로는 ▲진남야구장 바닥 등 노후시설물 개보수 ▲진남체육관 조명 등 노후시설물 개보수 ▲소호요트장 노후시설물 개보수 3개 사업이 선정돼 전국체전 준비에 박

차를 가하게 됐다.

앞서 시는 내년 10월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49개 종목(정식 46, 시범 3) 중 4개 종목(야구소프트볼, 배드민턴, 요트, 트라이애슬론)을 유치한 바 있다.

여수시는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와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실시설계 및 업체 선정 등을 거쳐 내년 8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기명 시장은 “전국체전 준비와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8월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결사반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전투기 소음에서 지켜주세요



황토와 갯벌, 생명의 땅 무안에 군 공항 이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안군